

중산간 개발 기준변경 계획 ‘무산’

도, 지난 2024년 11월 관련 동의안 제주도의회 제출 환경단체 등 ‘사업체 한화 특혜·중산간 난개발’ 지적 이상봉 의장 “12대 의회 상정 않을 것”... 폐기 수순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주도 지난 2024년 11월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에 대해 “제12대 의회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변경 동의안을 둘러싸고 도민 사회 논란이 여전하다”며 “남은 제12대 의회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해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차기 도정이 재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제주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한라산과 가까운 기존 1구역에 대해서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신설한 2구역에선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산간 1구역(379.6km²)은 평화리와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1100로 등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대

규모 관광개발 등 모든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금지된다.

제주도가 신설하려던 2구역(224km²)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에서 1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2구역에선 주거형·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개발 등을 제한할 예정이었다. 다만 골프장·스키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2구역에선 대규모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시민·환경단체는 한화 에델포레스트 관광단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에델포레스트 개발 예정 부지는 중산간 2구역에 속해 있고, 골프장 없이 숙박·휴양 단지를 짓는 것이어서 동의안이 통과돼도 개발이 가능해 특혜뿐만 아니라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에델포레스트 예정 부지는 동의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된 곳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의안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2월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통과했지만, 이상봉 의장이 그달 27일 본회의 개최 직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1년 넘게 판단을 미루던 의장이 결국 제12대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동의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2면으로 계속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의젍하네”... 초등학교 입학식 초중고 입학식이 일제히 열린 3일 한라초등학교 입학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청년정책 플랫폼 개편도, 분산된 정보 통합 제공

제주 청년정책 정보 플랫폼이 전면 개편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존 ‘청년이어드림플랫폼’에서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제주청년플랫폼’은 그간 여러 부처와 사업별로 분산돼있던 청년 정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한 번의 접속으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은통청년’ 플랫폼과의 연계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책을 자동 추천해주는 기능도 도입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출마지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2026년 3월 6일(금)

문의: 한라일보 총무부 ☎ 064)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제주의 선택-교육감 예비후보 특별대담 / 송문석

“제주교육 위해 36년 경험 살릴 것”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송문석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 교육은 학력, 교권, 진로, 지역 간 격차 문제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36년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념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제주형 책임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7면

송 예비후보는 한라일보·KCTV 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 공동 주최로 지난달 27일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으로 ‘기초학력의 양극화’를 지목했다. 그는 “초등 단계에서 기초가 흔들리면 중·고등학교에서 따라갈 수 없다”며 초등학교 입학 초기 진단 평가 실시, 학습 누적 데이터 활용 개발 보정 계획 수립,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등을 토대로 한 ‘기초학력 책임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IB 교육에 대해서는 인증형 확대를 통한 교사 업

무 부담과 형식화를 지적하며 IB 철학만 가져와 제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 ‘제주형 IB’ 도입을 대안으로 냈다. 초등학교부터 전면 실시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진 확대하는 계획이다.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 산업(해양, 환경, 에너지, 금융, AI 등)에 맞춰 고교 모델, 특히 특성화고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읍면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4·3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심각한 교권 침해 현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편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특히 선거 공학적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아이의 성장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으며, 단일화는 정치적 논리일 뿐”이라며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끝까지 실용과 균형을 길을 가겠다”고 일축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지난 50년 제주 밭 풍경 싹 달라졌다... 3면 / 야외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가득... 4면

경풍 耕豊

064-742-7047

since 2004

경풍

기력 보충이 필요할 때?
염소탕·삼계탕 전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일시장 어물전 앞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던 경풍이 염소탕, 삼계탕 전문점으로 메뉴를 변경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오일시장 어물전 앞 ☎ 742-7047 ※ 주차장 완비 / 단체 환영

경풍식당

세븐일레븐 • 입구

공영 P

제주민속 오일시장

공황사로

일주서로

월랑초 • 오일시장 진입

제주서중